

‘혁명적’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 ‘Revolucionario’)의 이념적 성격: 마누엘 가미오(Manuel Gamio)를 중심으로

김윤경(강원대)*

- I. 서론
- II.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형성 배경
- III. 메스티소와 새로운 지배체제에 대한 전망
- IV. 원주민의 메스티소화에 대한 인식
- V. 결론

I. 서론

본고는 “혁명적”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 Revolucionario)의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이유는 “혁명적” 인디헤니스모가 현재 멕시코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혁명적 국민주의²⁾의 위기’와

* Yoon-Kyung Kim(Kangwon National University, yetla@hanmail.net), “The Analysis of the idea of the “Revolutionary” Indigenistas on the Indian problem in Mexico: Focused on Manuel Gamio.”

1)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는 멕시코 혁명 후 원주민들을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담론이자 정책이자 운동이었다. 특히 혁명 후 1940년까지의 인디헤니스모를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인디헤니스파들의 원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혁명 전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기 인디헤니스모는 정부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는 의미에서 “공식적인” 인디헤니스모라 불리기도 한다.

2) nationalism의 우리말 역어는 민족주의, 국민주의 등으로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국민주의로 통일하고자 한다. 다인종 사회인 멕시코의 nationalism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혁명적 국민주의의 기원이 1920년대에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이다. 멕시코 혁명 후 국가 주도하에 공고화되었던 멕시코 국민주의, 즉 혁명적 국민주의는 근대화 프로젝트와 맞물리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이 70여 년간 장기 집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반외세와 국민통합을 근간으로 했던 혁명적 국민주의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로서 효력을 상실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멕시코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혁명적 국민주의의 위기 논쟁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치아빠스 원주민 봉기, 새로운 국민주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와 대응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선, 정통 해석은 원주민에 대한 인디헤니스따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토대로, 인디헤니스모가 원주민들을 빈곤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진정한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부정하면서, 인디헤니스따들은 원주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사실상 혁명 후의 멕시코에서 ‘타자’인 원주민을 없애고, 그들을 메스티소적인 국민문화로 동화시킴으로써 ‘국민’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알렉산더 도슨(Alexander S. Dawson)은 인디헤니스모가 원주민을 부정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주장했다(Dawson 1998, 279-308).

테는 언어, 혈통, 문화 등이 같은 단일민족을 기본 전제로 하는 민족주의라는 표현보다 근대적 영토국가와 거기에 통합된 국민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국민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원주민에 대한 인디헤니스따들의 긍정적인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인디헤니스따들은 원주민들을 사회개혁의 모델로 설정하여 근대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민중계급”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가 이념적인 면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기적으로는 알바로 오브레곤과 뽀루따르꼬 엘리아스 까예스의 집권기인 1920년대를 주로 다룰 것이다. 이 시기는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토대가 형성된 시기로서 그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두 번째로는, 인류학자 출신 인디헤니스따였던 가미오(Manuel Gamio)의 이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근대적 인디헤니스모”의 창시자라고 불릴 정도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디헤니스따로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선,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형성 배경을 가미오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형성 배경

혁명적 인디헤니스모가 등장하게 된 데에는 우선 원주민의 부상이 큰 역할을 했다. 원주민들은 멕시코 혁명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크게 부상했다. 당시 원주민들은 대다수가 혁명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원주민들은 멕시코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발견”이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발견”된 원주민들은 이제 단지 통합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혁명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무시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부상해 있었다.

혁명은 어떤 식으로든 원주민들의 존재와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메스티소들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새롭게 평가하고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혁명정부가 원주민들을 반혁명적인 지방토호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을 혁명 국가 내로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혁명적 인디헤니스모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원주민의 부상과 더불어,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혁명 전후로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상적 흐름의 변화였다. 1910년 멕시코 혁명은 사상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디아스 시대 말기부터 이미 원주민 문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둘째, 디아스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던 실증주의(positivism)와 과학주의(scientism)가 거부되고 새로운 관념론이 출현했는데,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젊은 지식인 협회’(Ateneo de la Juventud)³⁾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 단체의 지식인들은 혁명세력이 새로운 국민주의 지배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셋째, 라틴아메리카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로,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메리카주의(Americanism)와 토착주의(Nativism)가 등장했다. 이러한 로도의 사상을 이어받은 페루 출신 가르시아 칼데론(García Calderón)은 아메리카주의(Americanism)를 토대로 라틴아메리카의 자율성과 그것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인종

3) 혁명 직전인 1909년 10월 28일 멕시코시티에서 과학과 출신이 아닌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젊은 지식인 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는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와 안토니오 까소(Antonio Caso), 페드로 엔리케스 우레냐(Pedro Enriquez Ureña) 같은 젊은 철학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이 협회의 공동 창설자이면서 빅4로 불렸던 사람은 엔리케스 우레냐, 알폰소 레예스(Alfonso Reyes), 안토니오 까소, 호세 바스콘셀로스였다. 안토니오 까소를 초대 의장으로 한 이 협회는 디에고 리베라와 같은 화가(16%), 시인(32%), 건축가와 음악가(5%)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협회 구성원 명단과 그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Rojas Garcidueñas, 1979, 126-143 참조.

들 간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인종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라틴 정신”, “앵글로-색슨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전통, 관습 같은 정신적인 것, 즉 문화가 어떤 국민이나 집단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Leslie Bethell 1996, 27-28) 그는 기존의 생물학적인 인종개념을 거부하면서, 인종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문화적, 환경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생물학적인 요소 외에도 문화적인 요소, 국민정신, 환경 등이 인종을 특징짓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함으로써 인종에 대한 기존 개념을 깨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인디헤니즘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지적인 토양을 제공했다. 원주민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국민문화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원주민을 국민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특히 멕시코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⁴⁾

혁명적 인디헤니즘이 형성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적 토양에서 형성된 인디헤니스타(Indigenista)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다. 그들은 젊은 지식인 협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이 협회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는 등, 이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원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지식인들이다. 이후 그들 중 몇몇은 혁명에 직접 가담하여 혁명세력의 일부를 이루었으며, 대다수는 혁명 후 메스티소를 국민상으로 한 자유주의적인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려는 혁명세력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오브레곤 대통령과 그의 뒤

4) 페루에서는 인디헤니즘이 호세 까를로스 마리아테기(Mariátegui)와 빅토르 라울 아야 델라 토레(Victor Raúl Haya de la Torre)의 급진주의와 결합되면서 좀더 급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범 인도아메리카’라는 개념을 표방한 APRA (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 당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에서는 1916년 Comisión Honoraria de Reducciones de Indios라는 기구가 창설되었고,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에서는 가톨릭 미션들(Las Misiones Católicas)과 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져 원주민 집단을 시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업무들을 담당했다 (Juan Comas 1953, 255-257).

를 이은 까예스 대통령으로 대표되었던 혁명세력은 이러한 인디헤니스따들을 원주민 통합프로젝트에 대거 참여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혁명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원주민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벌어나갔으며, 그것을 토대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이념적 틀을 형성해나갔다. 게다가, 그들은 원주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정책들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는 혁명정부와 지식인들의 합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는 권력과 지식인의 결합의 산물이었다.

인디헤니스따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 부류는 혁명정부의 고위 관리들로서, 정부조직 내에서 원주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한 부류는 정부조직 밖에서 원주민에 대한 연구와 그것의 대중화, 그리고 원주민 문화의 국민문화로의 통합에 노력을 기울였다. 전자에 해당되는 중심인물들로는 교육부 장관이었던 호세 바스콘셀로스⁵⁾와 그의 뒤를 이은 호세 마누엘 뿌익 까사우랑(José Manuel Puic Casauranc), 까사우랑과 함께 교육부 차관으로 원주민 교육정책을 이끌었던 모이세스 사엔스(Moisés Sáenz), 농업 진흥청 장관이었던 빠스포르 루에(Pastor Rouaix), 그 산하기구인 인류학 분과의 최고 책임자였던 마누엘 가미오, 원주민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문화선교단(Misiones Culturales)⁵⁾의 단장이었던 라파엘 라미레스(Rafael Ramírez)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원주민 연구를 통해서 원주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던 학자들인 까를로스 바사우리(Carlos Basauri), 미겔 오손 데 멘디사발(Miguel Othon de Mendizabal), 루시오 멘디에따 누네스(Lucio Mendieta Núñez), 알폰소 까소(Alfonso Caso), 루이스 차베스 오로스코(Luis Chávez Orozco), 안토니오 구띠에레스 올리베로스(Antonio Gutiérrez y Oliveros)⁶⁾와, 벽화운동을 통

5) 농촌 원주민에 대한 교육과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Augusto Santiago Sierra, 1973 참조.

6) 이들 외에도 『에스노스』(Ethnos)에 원주민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게재하면서 원주민

해서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국민문화로 승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화가들인 디에로 리베라(Diego Rivera), 호세 끌레멘테 오로스코(José Clemente Orozco),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David Alfaro Siqueiros), 그리고 고대 원주민 음악을 국민음악으로 재구성하는 데 앞장섰던 음악가 까를로스 차베스(Carlos Chávez) 등을 들 수 있다.

인디헤니스따들 중에서 혁명적 인디헤니즘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바로 가미오였다. 오늘날 멕시코 인류학의 창시자이자 “근대적인” 인디헤니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누엘 가미오는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인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멕시코 원주민과 그들의 문명을 연구하는 데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1900년대 초 사상적 변화를 주도했던 ‘젊은 지식인 협회’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후스또 시에라 같은 당대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원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공감하고 있었다.(Angeles González Gamio 1987, 24-28) 그런 와중에 1909년에 뉴욕으로 건너간 그는 1910년까지 콜롬비아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유명한 인류학자 보아스(Boas)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류학적인 능력을 키워나갔다. 1911년 멕시코로 돌아온 그는 멕시코 국립 박물관 고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원주민 연구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12년에는 보아스의 지도 하에 고고인류학 연구에 처음으로 통계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아스까뽀잘코(Azcapotzalco) 인근의 산 미겔 아만틀라(San Miguel Amantla) 유적지를 발굴했다(David Strug 1956, 180-181). 이러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그는 1912에서 1915년까지 고대 유적 조사국(Inspección General de Monumentos Arqueológicos)의 총책임을 맡기도 했다(Juan Comas 1956, 3-4).

고고인류학자였던 가미오가 혁명적 인디헤니즘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은 우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알폰소 토로(Alfonso Toro), 프란츠 블롬(Franz Blom), 빠블로 곤살레스 까사노바(Pablo González Casanova) 등이 있었다.

학자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당시 멕시코 사회의 당면 문제 중 하나였던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된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인류학적 지식을 원주민 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는 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 가미오는 1915년 12월에서 1916년 1월까지 워싱턴 디시에서 열린 제2차 범 아메리카 과학 학회(el Segundo Congreso Científico Panamericano)에서 원주민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 학회에서 그는 인류학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각 나라마다 “전국적인” 인류학 학교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인류학적 지식이 원주민들을 국민으로 통합하고 그들의 잠재적인 힘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 학회에서 처음으로 선언했다(Gamio 1919, 15-18). 나아가 그는 멕시코 원주민에 대한 인류학적 지식이 근대적 국민국가의 “훌륭한 정부”(Bueno Gobierno)를 건설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류학이 멕시코 국민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데 아주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고학, 민속학 연구분과 프로그램」이라는 글에서 실용학문으로서 인류학이 갖는 유용성, 특히 원주민 문제의 해결과 국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인류학의 가치를 강조했다(Gamio 1918, 12).

그리하여 그는 인류학적 지식과 국민주의 이데올로기의 결합을 시도했다. 그는 1916년에 발간된 『조국의 형성을 위하여』(*Forjando Patria*)라는 책에서 이러한 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제시했다. 이 책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혁명운동으로부터 통일된 강력한 조국을 건설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이 책에서 우선 멕시코 인구의 구성을 분석했는데, 여기에 광범위한 문화적 기준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멕시코 인구의 대다수가 원주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⁷⁾ 그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

7) 가미오는 라틴아메리카 인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유럽문명을 대표하는 백인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로, 원주민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을 “애국적인 국민”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미오가 혁명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대표적인 인디헤니스파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책의 발간으로 그가 얻게 된 명성 덕분이었다. 이 책은 지식인들뿐 아니라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주체였던 까란사, 오브레곤 같은 혁명정부의 핵심인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다.⁸⁾ 혁명의 혼란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은 혁명세력에게 멕시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가미오가 이 책에서 주장한 원주민 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들은 혁명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통합 운동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인디헤니스모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특히, 원주민 문제의 해결에 인류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가미오의 주장이 혁명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원주민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다.⁹⁾

이러한 움직임은 1917년 5월 정부가 농업 진흥청(Secretaría de Agricultura y Fomento) 산하에 인류학 분과(Dirección de Antropología)를 창설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당시 농업 진흥청 장관이었던 빠스또르 루에(Pastor Rouaix)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 분과의 우두머리가 된 가미오는 잉헤니에로 레이가다스 베르띠스(Ingeniero Reygadas Vértiz)와 이그나시오 마르끼나(Ignacio Marquina) 등과 함께 이 분과를 이끌었다.¹⁰⁾ 이 분과는 가미오에게 그가 책에서 피력한 신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이 분과가 “근대적이고 분별력 있는 인류학적, 지리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개념에 정통

원주민들로 75%를 차지한다고 보았다(Gamio 1960, 7).

8) 이 책이 끌었던 관심에 대해서는 González Gamio 1987, 45-47 참조.

9) 멕시코의 인류학과 인디헤니스모의 관계에 대해서는 Arturo Warman, et al. 1970 참조.

10) 처음에는 이 부서의 명칭이 고고 민속학 연구 분과(Dirección de Estudios Arqueológicos y Etnográficos)였다가 1918년에 인류학 분과로 바뀌었다(Bernal and Hurtado, eds. 1956, 39-43).

한” 기구로서 과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주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했다. 첫째는 원주민들의 인종적 특징, 언어, 경제적 상황과 생물학적 물리적 환경조건,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에 대해 점차적으로 지식을 습득해나가는 것, 둘째는 원주민들의 물리적, 지적, 도덕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는 “진정한 조국”과 “견고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서 원주민들과의 문화적 융합, 언어의 통일, 경제적 균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나가는 것이었다.(Gamio 1919, 20) 이러한 사업은 그가 『에스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원주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력했던, 원주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Gamio 1920, 20).

가미오는 이러한 계획의 첫 작업으로 떼오티우아칸 계곡(Valle de Teotihuacán)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가미오는 잉헤니에로 빠레스 아얄라(Ingeniero Pérez Ayala), 에르만 베예르(Hermann Beyer), 산띠아고 레온(Santiago León), 에우헤니오 고메스 마일예페르뜨(Eugenio Gómez Maillefert), 빠블로 곤살레스 까사노바(Pablo González Casanova), 까를로스 노리에가 호빠(Carlos Noriega Hope) 같은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수백 명의 작업 인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떼오티우아칸 문명의 유적지인 이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는 이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올렸다.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달의 신전”과 “태양의 신전”을 조사하고 그 신전들의 특징들과 역사를 밝혀냄으로써 떼오티우아칸을 고대 문명의 유적지로 복원해놓았던 것이다.¹¹⁾ 이 작업으로 떼오티우아칸 지역이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의 하나가 되었고, 야만적인 문명으로 인식되던 그곳의 원주민 문명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위대한 문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그의 연구는 원주민과 그들의 문명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는 이 연구로 1921년 콜롬비아

11) 이 신전들이 형성된 정확한 시기나 떼오티우아칸이 톨텍문명의 수도인 톨라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가미오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아직도 고고인류학자들의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22년에는 『테오티우아칸 계곡의 주민』(*La Población del Valle de Teotihuacán*)이란 책을 펴냈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가미오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멕시코의 원주민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공론화하는 일이었다. 1920년 4월 그는 루시오 멘디에타 누네스(Lucio Mendieta Núñez)와 미겔 오손 데 멘디사발(Miguel Othon de Mendizabal) 같은 인류학 분과의 동료들과 함께 『에스노스』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이렇게 창간된 잡지는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언어학, 인류학 등 여러 분과 학문에 종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인디헤니스타들의 논문들을 실었다. 그리고 소책자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발간되었다. 특히, 원주민과 그들의 문화, 나아가 그것이 국민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논문들이 이 잡지에 많이 실렸다. 이 잡지에 실린 논문들은 종종 원주민들의 축제나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관행들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들도 문화적인 집단의 일원이며 그들의 문화가 국민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¹²⁾ 특히 가미오는 원주민의 과거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것을 멕시코의 영광스러운 과거로 만드는 데 이 잡지를 적극 활용했다. 그는 아스텍 문명을 야만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허위에 찬 멍청한 국민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콜럼버스 이전의 원주민 문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Gamio 1922, 5-6). 『에스노스』는 원주민의 과거, 특히 콜럼버스 이전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그것을 국민문화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였다.

원래 인류학 분과의 기관지로 만들려고 했던 이 잡지의 창간 목적은 인류학을 대중화하고 그럼으로써 원주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들을 국민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인디헤니슴의 대중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는 창간호에 실린 가미오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12) 예를 들면, “Los Cooperativas Agrícolas,” *Ethnos* 1, núm.1 (noviembre 1922), 5-6; Enrique Díaz Lozano, “Los Restos Fósiles Cuaternarios y las Culturas Arcaicas de Valle de México,” 37-51; Gamio, “El Celibato y el Desarrollo de la Población en México,” *Ethnos* 1, núm. 2 (febrero 1922), 67-70.

실용주의적인 혹은 실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멕시코인들의 상당수가 세상에 알려질 권리와 사회 발전에 의식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그들을 국민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Comas 1964, 25).

이 잡지는 재정적인 곤란으로 인하여 부정기적으로 발간되었는데, 1921년 3월에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1922년 11월에 다시 발간되었고, 1923년 4월까지 발간되다가 중단되고 난 후 1925년 1월 다시 발간이 되기 시작해서 3월에 완전히 폐간되었다. 『에스노스』가 처음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발간되기 시작한 제2기 『에스노스』부터는 잡지의 기본방향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 가미오는 제2기 『에스노스』의 첫 호인 1922년 11월 호에서 이 잡지의 목적이 종래에 이 잡지가 추구했던 인류학의 대중화라는 것과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연구와 그들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의 모색 등임을 분명히 밝혔다(Gamio 1922, 2).

이처럼, 『에스노스』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 특히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에서 창간된 잡지였다. 이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가미오는 멕시코를 강한 “조국”으로 만들려는 국민주의적 열망이 강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 무시당해왔던 원주민들을 국민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잡지를 만들었다. 그는 원주민이 멕시코 국가 공동체 밖에 남아 있는 한 ‘진정한’ 국민이 창출될 수 없다고 보았다(59). 이 잡지는 국고의 부족으로 1925년 발간이 중단될 때까지 이러한 열망을 반영하면서 “진정한” 국민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가미오는 혁명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인류학 분과라는 정부산하 기구와 『에스노스』라는 잡지를 통해서 원주민을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활발하게 벌임으로써 인디헤니스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바꿔 말하면,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는 정부의 주도하에 정부와 가미오 같은 능

력 있는 인디헤니스따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 기초가 형성되었다. 비록 대중들에게 원주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려고 했던 『에스노스』가 재정적인 이유로 계속 발간되지 못하고, 이와 더불어 인류학 분과도 교육부(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로 바뀌게 되면서 그의 영향력도 힘을 상실하게 되었지만¹³⁾, 그가 인디헤니즘의 발전을 위해 다져 놓았던 기반은 대중들에게 원주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국민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1930-40년대 계속해서 인디헤니즘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25년 SEP은 『멕시코 민속』(*Mexican Folkways*)이란 잡지를 발간했는데¹⁴⁾, 이 잡지는 인류학의 대중화와 원주민 문화에 대한 지식의 보급이라는 『에스노스』의 취지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원주민의 관습과 전통들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이 잡지는 정부의 원주민 정책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공식적인 장이 되었다. 게다가, 1925년에 교육부 차관이 된 모이세스 사엔스 같은 인디헤니스따들은 인류학 분과의 경험과 가미오의 이념을 물려받아 인디헤니즘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갔다.¹⁵⁾

13) 1924년 오브레곤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까예스(Plutarco Elías Calles)는 관료주의적 효율성과 교육부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호세 마누엘 뿌의 까사우랑(José Manuel Casauranc)을 초대 장관인 호세 바스콘셀로스 후임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가미오에게는 그가 정부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까사우랑 밑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류학 분과를 교육부로 통합한 것과 더불어 가미오의 영향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Mary Kay Vaughan 1982, 138-139).

14) 이 잡지는 원래 프란시스 투어(Frances Toor)에 의해서 창간되었다. 1922년 썸머 스쿨에 참가하기 위해 멕시코에 갔던 투어는 멕시코의 민속문화에 매료되어 이에 대한 잡지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5년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가미오의 도움을 받아 이 잡지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가미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 잡지는 SEP의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서 1933년까지 계속해서 발간되었다. 이 잡지는 가미오의 논문을 비롯하여, 디에로 리베라, 모이세스 사엔스, 빠블로 곤살레스 까사노바, 알폰소 까소 같은 멕시코 유명 지식인들의 논문을 실었다(Helen Delpar 1992, 36).

15) 모이세스 사엔스는 SEP를 중심으로 1930년대 인디헤니즘의 발전을 주도했는데, 교육을 중요시 여겼던 그는 원주민들을 가르칠 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Misiones Culturales를 만들었고 원주민 공동체들의 경제적 개선을 위해서 원주민 문제 자치국(Departamento Autónomo de Asuntos Indígenas)을 창설했으며 1940년에는 빠츠꾸아로에서 최초로 국제 인디헤니스따 대회를 열었다.

III. 메스티소의 역할과 새로운 지배체제에 대한 전망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가미오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기본 이념 틀이 정립되어 나갔다. 우선, 가미오는 혁명 후 새로운 지배체제와 메스티소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메스티소는 무엇보다도 혁명세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말이다. 가미오가 『조국의 형성을 위하여』에서 설명한 메스티소의 성격은 메스티소와 혁명세력의 연관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이 계급은 영원한 반란자였으며, 순수한 피 혹은 외국인의 피를 가진 계급의 전통적인 적이었고, 반란과 혁명의 주동자이자 지도자였다. 게다가 원주민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온 계급이다(Gamio 1960, 96).

가미오는 메스티소의 기본적인 성격을 반란적이고 혁명적이라고 규정지었다. 이는 디아스 체제의 지배질서에 대항하여 원주민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혁명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1921-1924년까지 4년 동안 교육부 장관을 지낸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범위를 더 넓혀서, 머지않아 라틴아메리카에 새롭고 보편적인 “세계적인 인종”(La raza cósmica), 즉 메스티소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메스티소는 이미 “라틴아메리카의 지배적인 요소”이며, “미래로 나아가는 가교”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서 과거의 어느 인종보다도 보편적인 문명을 창조하게 될 것이었다.(Vasconcelos 1948, 9-12) 바스콘셀로스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투쟁과 대개혁 시대에 메스티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하면서, 메스티소가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의 지배세력으로서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미오는 『조국의 형성을 위하여』에서 메스티소로 대변되는 중간계급을 “지적인 활동의 주역이자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면서, 새로운 체제는 바로 이들, 즉 “앞으로 멕시코 사회를 지배하게 될 사람들의 성격과 필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혁명 후 새로 건설될 사회가 중간계급인 메스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가미오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기본 이념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치의 민주화를 뜻하는 의회민주주의였고, 두 번째는 국민주의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였으며, 마지막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었다. 우선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미오는 디아스 시대의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디아스 시대의 대의제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이론상, 명목상의 대의제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Gamio 1960, 75). 실제로 디아스 시대의 의회는 디아스의 동의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라기보다는 디아스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였다. 디아스가 37년 동안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의회를 통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⁶⁾ 가미오는 『조국의 형성을 위하여』에서 멕시코의 정치를 혁명을 기점으로 “과거의 정치”와 “미래의 정치”로 구분하고 “과거의 정치”의 성격을 부패한 것으로 규정지었다(79-80).

가미오는 이러한 부패한 “과거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미래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라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정치였다. 가미오는 정치를 두 개의 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정부의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대의 정치”이다(81-82).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다 그는 반대세력의

16) 디아스는 1892년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1898년, 1904년, 1910년까지 계속 집권했다(Leslie Bethell ed., 1987, 81).

견제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반대의 정치”는 정부가 국민을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반대”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가 제시하는 이념이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었다. 가미오는 민주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와 반대세력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뿐 아니라, 도덕적 건강, 정치인 개인의 능력, 효율적인 대의제도 필요하다고 보았다(83). 특히 그는 대의제의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민주적인 입법부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세 가지 제시했다. 종족별 대표, 인구별 대표, 지식인 대표가 그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종족별 대표에 대해서 그는 “우리 국민의 다양한 종족 집단들을 합법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에 의해서 지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6). 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아무리 원시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할 때 의회가 다양한 종족집단들이 처한 조건과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알고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구별 대표는 모든 사회집단들의 직접적인 대표를 말하는 것이었다. 가미오는 과거처럼 의회가 비양심적인 부르주아 집단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의 형성을 위하여』에서 인구별 대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모든 사회집단들의 직접적인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하자면, 도시 노동자들, 농촌의 낫팜팔이들, 관료들, 산업가들, 농업가들, 자본가들, 어부들, 철도 종사자들 등등은 입법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와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오늘날까지 그래왔듯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고 또한 국민을 구성하는 모든 사회집단들을 위한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다(77).

세 번째로, 가미오는 지식인 대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식인으로서 가미오는 기존의 지식인들이 현실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것을 비판하면서, 지식인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과학자, 언론인, 예술가 같은 지식인들을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

로 보았던 과거의 지배적인 견해는 “결정적인 편견”이었다. 그는 예전부터 지식인들은 모든 부문에서 국가발전의 토대이자 정점이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며, 따라서 지식인들의 참여와 협력이 없는 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77-78).

가미오가 새로운 체제의 이념으로 제시했던 두 번째 요소는 경제적 국민주의를 토대로 한 산업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였다. 그는 먼저 멕시코 산업생산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국의 형성을 위하여』에서 멕시코 산업의 대외종속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143-144). 가미오는 멕시코 산업의 대외종속성이 국민산업도 외국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전행적인 국민산업”은 먼 과거 즉, 정복 이전 고대 원주민들의 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 장식 산업, 보석장식 산업, 금은 세공업 등, 상당히 가치가 높은 국민산업은 불행하게도 정복 이후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산업에 밀려 무시당하게 되면서 뒤쳐지게 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외국산업은 번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산업의 발전도 멕시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멕시코 산업의 성격을 이렇게 진단한 가미오는 “진정한 국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같은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과학적인 근대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민산업의 육성(nacionalización industrial)이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147-148). 우선 첫 번째는, 외국산업을 선호하고 국민산업을 경시하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경향”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와 함께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산업의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국민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외국산업의 기술과 방법을 국민산업에 적용하면서 양자의 융합을 피하는 것이었으며, 네 번째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외국의 산업중심지들로 보내고, 외국에다 멕시코 국민산업 시

설들을 설치하고, 반대로 멕시코에다 외국의 새로운 산업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네 번째 사항은 산업의 근대화를 위해서 선진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가미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새로운 체제의 이념으로서 제시되었던 마지막 요소는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식민지 시대 이후 멕시코 사회에서 가톨릭이 초래한 폐해에 주목하면서 가톨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고대 원주민의 지식문화 특히, 예술의 가치에 주목했던 가미오는 원주민 문화의 쇠퇴와 가톨릭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Gamio 1922, XLIII). 고대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의 예술성, 특히 종교적 예술성이 정복자들이 가지고 온 가톨릭에 의해서 많이 파괴됨으로써 문화의 정체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원주민들의 종교관과는 달리, 가톨릭은 자연과 분리된 신과 성인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위대하고 창조적인 소재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었다(Gamio and Vasconcelos 1926, 114). 가톨릭은 원주민들의 종교적 예술성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쇠퇴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기도 했다(Gamio 1922, XLIII). 식민지 시대 수도사들이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이 그들의 문화를 쇠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수도사들은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자기들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원주민들을 경제적으로 파멸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원주민들에게 우호적이고 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던 라스 까사스 신부 같은 사람은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런 상황에서 원주민의 예술성과 도덕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미오가 비판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교리 자체보다는 가톨릭의 왜곡된 형태였다는 점이다. 그는 탐욕에 찬 수도사들의 만행이 원주민들에게 가톨릭의 진정한 가르침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원주민들은 정통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먼 미신

과 우상숭배가 교묘하게 결합된 종교, 그의 말을 빌리면, “이교적인 가톨릭”(catolicismo pagano)을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XIVI-IX). 그는 가톨릭교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이교적인 가톨릭교도들(los católico-paganos)로서 다양한 종족의 원주민들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가톨릭교도들로서 존중하고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실용주의적인 가톨릭교도들(los católicos utilitarios)로서, 특히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가미오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였다. 그는 원주민들의 이교적인 가톨릭 외에 실용주의적인 가톨릭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인을 국가와 국민 같은 것으로 대체하고, 자신들의 권력 야욕을 위해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들로서, “진정한 가톨릭교도의 적”이었다(Gamio 1956, 166-169). 그들은 스스로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들을 교화시켜야 했다. 따라서 가미오의 가톨릭에 대한 비판은 멕시코의 현실 종교가 빚어낸 폐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가미오가 제시했던 새로운 체제의 이념들을 살펴보았다. 과거에 저질러진 자유주의의 경제적 폐해들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그가 새로운 체제의 이념으로 제시했던 것은 자유주의였다. 의회민주주의, 경제적 자립에 기초한 자본주의, 가톨릭에 대한 비판은 모두 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서 특권계급의 소유물인 정치권력을 민주화하고, 다양한 사회집단들과 계급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원칙이었다. 혁명 후 국가재건기인 1920년대의 자유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자본의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¹⁷⁾ 가톨릭에 대한 비판 역시 대개혁 시대 이후 줄곧 자유주

17)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어떠한 간섭도 반대했으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자유무역, 개개인의 권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들어서서 근대적 자유주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근대적 자유주의는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자들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아왔다. 가미오는 혁명으로 새로 건설될 체제는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이념들이 제대로 실현된 체제, 즉 백인과 메스티소만을 위한 과거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메스티소가 중심이 되어서 원주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자유주의가 실현된 체제이기를 바랐다. 그가 백인과 원주민의 왜곡된 관계의 회복을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이념의 틀 안에서였다. 그는 자유주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고 그것을 토대로 원주민들이 메스티소가 될 때 진정한 근대적인 통일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미오는 메스티소를 새로운 체제를 이끌어갈 지배세력으로 규정하고 자본주의에 토대를 둔 자유민주주의를 새로운 체제의 이념으로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체제의 이념은 혁명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혁명정부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경제적 자립을 꾀했으며, 사회의 특권계급으로서 부와 권력을 장악한 채 근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보수집단, 특히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새로운 체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메스티소가 추구하는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자주화와 근대화, 교회의 개혁 같은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IV. 원주민의 메스티소화에 대한 인식

인디헤니스파들의 주된 관심사는 원주민을 바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새로운 지배체제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원주민을 메스티소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가미오는 원주민을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면서 선천적으로 열등하다고 보았던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과는 달리, 원주민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그는 우선 “인종” 보다는 “문화”에 강조점을 두면서 원주민을 문화적 기준으로 새로이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 자유주의의 변화에 대해서는 Charles A. Hale, 1989, 참조.

정의했다. 그는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원주민의 본질적인 열등함을 주장하는 사회 진화론적 입장을 탈피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 집단들의 물질적, 지적인 표현들의 총체이며, 등급을 매겨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Gamio 1956, 103-107). 그는 기본적으로 각 집단에 고유한 문화는 우열을 논할 수 없는 것이며, 원주민도 문화 그 자체로서 존중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문화의 구체적인 형태는 산업, 의복, 문학, 미술, 음악, 도덕적, 종교적 개념들, 전통 같은 것들이다. 그에 따르면, 백인과 원주민과 메스티소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며, 그 차이는 전통과 종교, 예술, 도덕, 산업, 주거, 의복 같은 문화와 관련된 것들에서 나타난다(Gamio 1918, 9-10). 가미오는 『조국의 형성을 위하여』에서 여러 집단들의 서로 다른 문화들은 그것이 형성된 고유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문화의 상대성을 주장했다.

문화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형성된다. 말하자면,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의 종족적, 사회적 성격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조건들에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Gamio 1960, 103-104)

가미오는 이러한 문화개념을 원주민을 정의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여, 문화적인 특징을 원주민과 백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는 문화적 특징을 기준으로 멕시코 사람들을 “원주민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럽의 근대적인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혼합적인 혹은 멕시코적인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나누었다(Gamio 1960, 95).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중에서 원주민 문화에 속하는 물품들의 수가 전체 물품들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그들은 인종 면에서 백인이나 메스티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187-188).

가미오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하고 제거하려 했던 것은 주로 원주민의 물질문화였다. 그는 원주민들이 옥수수를 갈 때 사용하는 맷돌 메따메와 원주민들이 신는 샌들 우아라체를 “결함이 있는” 물질문화로 분류했다. 가미오는 이처럼 결함이 있는 물질문화는 보완되거나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지식문화”에 대해서는 가미오의 입장이 달랐다.¹⁸⁾ 그는 원주민의 지식문화 중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지적했다. 가미오가 원주민의 지식문화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 평가했던 부분은 예술이었다. 그는 원주민 예술을 “아메리카의 문화적 자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원주민들의 지식문화에 대한 가미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떼오티우아칸 계곡의 주민』이다. 이 책에서 그는 떼오티우아칸 문명의 건축, 조각, 그림 등의 예술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그는 특히 떼오티우아칸 문명의 조각과 그림과 같은 예술품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복 이전의 조각과 그림은 무엇보다도 장식에 있어서 화려하고 특징적이며 독창적이다. 이러한 장식의 예술적인 가치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것들과는 다르다. [...] 이러한 장식은 떼오티우아칸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임으로써 그들을 즐겁게 했으며, [...] 더욱이 존재로부터 오는 난해한 감정들과 아주 심오한 것들을 그들에게 종합

18) 그는 지식문화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는 원주민의 지적인 문화를 설명하면서,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구전에 의해서 전수된 조상들의 이념과 개념들”, “과학적인 준비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그리고 “개인적이고 관습적인 성격의 해석들이나 평가들로부터 나온 이념과 개념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의학을 예로 들면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원주민들의 주술적인 의학지식과 여러 사람들의 관찰과 증명을 통해서 형성된 근대의학을 대비시키고, 원주민들의 유행병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들의 비과학적인 의술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가미오는 원주민들의 지적인 문화가 비과학적이라는 의미에서 “경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결과적으로 결함이 많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Gamio 1960, 193-194).

적으로 보여주었다(Gamio 1922, LXXII).

원주민의 지식문화에 대한 가미오의 긍정적인 평가는 당대의 인디헤니스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 가미오와 함께 교육부에서 활동하면서 원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모이세스 사엔스 역시 원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원주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원주민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까지 이어졌다. 1920년대 중반부터 40년대까지 원주민 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카를로스 바사우리(Carlos Basauri)는 원주민의 지적 능력을 높이 샀다. 그는 「현재 멕시코 원주민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글에서 원주민을 “정열적이며 많은 잠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종으로 묘사했다.(Basauri 1928, 5) 또한 그는 1926년에 설립된 ‘원주민 학생의 집’(Casa del Estudiante Indígena)을 평가하면서, 이 단체의 활동이 원주민들이 과학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원주민을 이상화하고 그들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분석했던 인디헤니스타는 안토니오 구띠에레스 올리베로스(Antonio Gutiérrez y Oliveros)였다. ‘원주민 학생의 집’의 교사였던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1929년에 『원주민의 정신적 가치』(*Valores espirituales de la Raza Indígena*)라는 책자를 출판했다. 이 책자에서 그는 원주민들의 “우수한 특징”을 28가지로 분류했는데, 우선 신체적으로 원주민들이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와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100세 이상 장수할 정도로 건강하며 기운이 세다고 주장했다.(Gutiérrez y Oliveros 1929, 11-12) 원주민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묘사는 혁명 이전에 원주민을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견해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이처럼, 가미오는 원주민 문화를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열등한 것, 나아가 앞으로 계속 보존해야 할 것과, 버리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누면서, 대략 물질문화는 부정적인 것, 지식문화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원주민 문화가 모두 열등한 것이 아니라 긍

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며, 긍정적인 문화는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여 국민문화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가미오의 기본 입장이었다. 새로운 멕시코를 건설하기 위해 늘 원주민을 국민으로 통합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던 가미오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그 중에서 멕시코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국민문화의 일부로 흡수하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원주민의 물질문화가 아니라 지식문화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러한 가미오의 주장은 원주민을 열등하다고만 보는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원주민과 원주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원주민 문화, 특히 지식문화의 기원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 “원주민적”이라고 간주되는 지식문화의 특징들이 실제로는 유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주민적인” 음식문화, 의복, 종교, 사회조직들이 종종 스페인적인 요소들과 혼합되어 있었다. “순수한” 원주민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만크이나 문화적으로도 드물었다. 따라서 원주민적인 문화, 특히 “지식문화”를 유럽 문화로부터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려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을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미오의 시각은 이후 1930년대까지 계속 인디헤니스따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디헤니스모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까를로스 바사우리 같은 인디헤니스따는 문화적 관점을 토대로 원주민에 접근하면서 원주민들의 다양한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¹⁹⁾ 그는 가미오의 “지식문화”라는 말 대신에 “정신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까르테나스 시기에 이르러서도 문화를 중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원주민을 규정짓고 이해하려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이 시기 인디헤니스따들 역시 문화를 물질문화와 지식문화

19)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La Población Indígena de México: Etnografía* (México: SEP, 1940); *La Situación Social Actual de la Población Indígena de México y Breves Apuntes Sintéticos sobre Antropología y Etnografía de la Misma* (México: Talleres Gráficos de la Nación, 1928) 등이 있다.

로 구분하는 가미오의 이중적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원주민 문화 중에서도 특히 물질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문화를 “문자해독능력”, “심미적 재능의 종족적 표현”, “정교한 예술에 대한 관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했던 그들은 원주민의 지식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Majorie Becker 1995, 72-73). 원주민 문화를 물질문화와 지식문화로 나누고 물질문화는 개혁의 대상으로, 정신문화는 국민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것으로 존중하는 이러한 인디헤니슴파들의 사상과 이념은 바로 가미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인디헤니슴파들이 메스티소로 만들고자 했던 주요 대상은 “죽은” 원주민보다는 “살아 있는” 원주민이었다. 그들은 “죽은” 원주민, 즉 고대 원주민의 지식문화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복원을 통해서 그 자체를 국민문화로 승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원주민은 달랐다. 그들은 메스티소가 되어야 했다. 생물학적으로 메스티소가 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원주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혁명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했다. 그래야만 멕시코 국민이 될 수 있었다. 가미오에 따르면, 원주민을 메스티소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근대문명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Gamio 1922, XXXV). 그것은 원주민과 백인이 생물학적으로 결합하는 것보다는 원주민을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혁명정부가 표방하는 새로운 사회체제로 흡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선, “살아 있는” 원주민을 메스티소화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통합한다는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였다. 원주민들의 물질문화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던 인디헤니슴파들은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원주민들이 메스티소가 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가미오는 『메오띠우아칸 계곡의 주민』에서 백인과 메스티소, 원주민의 생활수준을 설명하면서,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 메스티소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XXVII).

가미오를 비롯한 인디헤니스따들이 원주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겼던 것은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토지를 분배하고 농업을 근대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원주민들이 토지소유자인 농민이 되도록 하는 길이었으며, 나아가 멕시코 농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닦는 일이었다. 인디헤니스따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주민들과 메스티소, 백인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지분배는 원주민의 메스티소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다. 까를로스 바사우리는 당시 원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논하면서, 원주민들의 경제적 궁핍의 주요 원인은 바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에, 토지가 분배되면 원주민들의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그들의 지적인 능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asauri 1926, 16). 가미오 또한 떼오티우아칸 계곡의 주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토지가 없는 대다수 원주민들에게 경작 가능한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그들을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⁰⁾ 더욱이 그는 원주민들에게 분배된 토지가 공동으로 “개발”(explotación)되기를 바랐다.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 토지를 공동 경작하게 하는 것이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업의 근대화를 위해 관개시설과 도로망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주민의 메스티소화는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적, 정신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것은 원주민의 물질문화와 지식문화의 개선이 병행될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원주민의

20) 가미오는 떼오티우아칸 계곡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일 때 루시오 멘디에타 누네스에게 그 지역의 토지소유 역사와 현재 토지분포 상황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7개의 아시엔다가 9523헥타르, 즉 그 지역 전체경작지의 90%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0%는 416명의 소토지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전체 주민 8330명 중 대다수인 7907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가미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촌락들에게 경작 가능한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스티소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가미오는 「원주민의 통합」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원주민의 메스티소화에서 중요함을 강조했다.

원주민과 백인의 문화적인 접촉은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촉이 추상적인 문화적 개념들을 수반하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인위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포드 자동차, 재봉틀, 사진 같은 것들이 고립된 원주민 촌락에 도입되었다고 하자. 하지만 원주민들에게 근대적인 기계들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원주민 문명이 근대문명의 수단들과 제도들로 대체되지 않으면, 혹은 근대문명과 원주민 문명이 융합되지 않으면, 근대문명의 이기들은 아무런 역동적인 문화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도구들은 단지 원주민들의 생활에 추가되는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Gamio and Vasconcelos 1926, 121-122).

가미오는 원주민들을 진정으로 메스티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주민 공동체에 근대적인 물질문명을 도입하여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원주민들을 문화적으로도 메스티소화하여 “진정한 국민적 영혼”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다.

인디헤니스타들은 원주민들을 문화적으로 메스티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에게 교육은 원주민들의 물질적인 삶뿐 아니라, 나아가 지적, 문화적 삶까지 메스티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1920년대 교육부(SEP,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는 원주민들을 문화적으로 메스티소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로 삼았다. 인디헤니스타로서 1924-1928년 교육부 장관을 지낸 뿌익 까사우랑은 1926년 교육부 간부회의에서 원주민에 대한 교육을 “원주민의 동화(asimilación)를 위한 작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SEP 1927, 31).

가미오는 교육이 갖는 문화적 기능과 더불어 경제적 기능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은 경제적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Gamio and Vasconcelos 1926, 132). 실용주의적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가미오의 출발점은 “국민주의적인 통합교육”이었다. 그것의 기본내용은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번영과 조국의 발전도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Gamio 1960, 159). 가미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원주민에 대한 농촌에서의 교육이었다. 그는 멕시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하고 열악한 상태에 빠져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균등한 분배뿐 아니라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원주민들에게 자연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교육은 농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다. 그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문맹률을 낮추고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삶의 조건이 개선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멕시코 국민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150).

원주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가미오의 사고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생각은 “원주민은 열등한 인종이 아니며, 따라서 백인들의 문명에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고대 원주민들의 지식문화가 교육을 통해서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디헤니스파였던 뿌익 까사우랑도 “법도 관습도 우리의 인종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집단, 즉 원주민, 백인, 메스티소 사이에 차이를 만들지 않으며”, 원주민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예술적인 능력은 다른 어떤 인종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인디헤니스파들에게 공통된 생각이었다(SEP 1927, 20). 이를 토대로, 인디헤니스파들은 교육을 통한 원주민들의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상태의 개선이 “살아 있는” 원주민들을 근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예속과 억압으로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원주민들의 정신적인 가치들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주민에 대한 교육은 비단 살아 있는 원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삶의 개선

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만 강조되었던 것은 아니다. 가미오가 그토록 높이 평가했던 고대 원주민의 “지식문화”를 회복하고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원주민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미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경제적, 지적 차원에서 원주민을 메스티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원주민들을 경제적으로 메스티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지를 분배하고 원주민들을 토지소유자로 만들려고 했다. 또한 그는 원주민들이 도시로 나가 노동자가 되는 것도 그들을 메스티소로 만드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Gamio 1922, LXXXII). 이것은 원주민들을 하나의 인종이나 종족으로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노동자라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국민에 ‘흡수’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교육은 원주민의 물질생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생활까지 개선시킴으로써 그들을 멕시코 사회로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가미오는 교육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가치로 대변되는 유럽의 근대문화를 전파시킴으로써 그들을 과거의 원주민이 아닌, 정신적, 문화적으로 “근대화”된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것이 가미오가 말하는 원주민의 메스티소화가 갖는 진정한 문화적 의미였다.

V. 결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류학적 지식을 원주민 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려고 했던 가미오와 혁명정부의 만남은 혁명적 인디헤니슴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는 『조국의 형성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멕시코 인구의 대다수가 원주민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원주민에 대한 연구와 그들을 “애국적인 국민”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이 가져다 준 명성을 토대로 정부와 손을 잡고 농업 진흥청 산하에 인류학 분과를 만들었다. 인류학 분과장이 된 가미오는 원주민

에 대한 연구 작업을 활발하게 벌였을 뿐 아니라, 『에스노스』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그 성과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까지 함으로써 인디헤니즘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가미오는 혁명 후 달라진 상황 속에서 원주민을 과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죽은” 원주민, 즉 고대 원주민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민문화로 승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주민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통해석에서 주장하듯이 혁명적 인디헤니즘이 원주민의 입장에서 원주민들을 빈곤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로운 국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원주민을 위한” 이념이자 운동은 더더욱 아니었다. 만일 혁명적 인디헤니즘이 그러한 것이었다면, 그는 기예르모 봉필 바따야(Guillermo Bonfil Batalla)가 주장하듯이(Bonfil Batalla 1996 참조), 원주민에게 유럽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한다.

그러나 가미오는 “살아 있는” 원주민의 문화적 열등성이 결국 자본주의적 근대화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토지분배와 교육을 중심으로 “살아 있는” 원주민들을 메스티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토지분배는 원주민들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원주민을 메스티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육은 경제적 개선과 더불어 지적, 정신적인 차원에서 원주민을 “근대적인”, “메스티소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메스티소가 된다고 해서 원주민들의 메스티소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원주민들은 지적, 정신적으로도 메스티소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주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메스티소가 된다는 것은 에히도 분배 같은 경제적 개선방법을 통해서 토지소유자나 노동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원주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근대적인 농업기술과 자유, 민주, 노동, 근면, 자본축적, 사적소유 같은 자유민주주의

적 자본주의적 문화, 즉 근대적인 유럽문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주민들이 문화적으로 메스티소가 된다는 것은 “살아 있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버리고 근대적인 유럽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그는 원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적이고 가톨릭에 대해 비판적인 자본주의 지배 질서, 즉 새로운 사회체제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것은 원주민을 백인과 메스티소와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국민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메스티소가 지배하는 지배질서 속으로 ‘흡수’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볼 때, 혁명적 인디헤니스모가 과연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 “혁명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에서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변화도 “혁명적”이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가미오는 원주민의 선천적 열등함은 거부했지만 그들을 원주민으로서 온전하게 존중해주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원주민들은 메스티소가 추구하는 근대적인 유럽문화에 ‘흡수’되어야 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원주민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혁명 전이나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1994년 벽두에 터진 치아빠스 농민반란은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이러한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윈주의에 기초한 원주민 공동체의 자율성과 원주민의 존엄성에 대한 치아빠스 원주민들의 요구는 혁명적 인디헤니스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디헤니스모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원주민의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Abstract

Este artículo se trata de investigar el carácter del indigenismo

“revolucionario” desde el punto de vista ideológico en base al análisis a través de la idea de Manuel Gamio. Gamio intentó a aplicar la visión antropológica para resolver el problema indígena, por lo tanto fundó la Dirección Antropológica bajo Secretaría de Agricultura y Fomento con el apoyo del gobierno revolucionario.

Gamio investigó sobre el asunto indígena como director de dicha Dirección, además publicó la revista *Ethnos* para que pueda difundir el trabajo. En ese sentido, Gamio contribuyó a tomar la base ideológica del indigenismo mexicano.

Aunque Gamio reconoció los indígenas con un sentido positivo, sin embargo creyó que la inferioridad cultural de los indígenas “vivos” fue un obstáculo de la modernización capitalista. El insistió a mestizar los indígenas en base a la educación y la distribución de tierra, no sólo en el nivel socioeconómico sino en el nivel cultural. Por último, trató de “absorber” los indígenas al nuevo sistema dirigente que fue democrático-liberal, anticatólico y capitalista.

Por eso, el sentido del término “revolucionario” del indigenismo revolucionario fue sólo un cambio del conocimiento de los indigenistas por el indígena. Gamio negó la inferioridad innata de los indígenas, pero no les respetó como estuvieron ellos. Pues, no hay una diferencia del carácter entre el indigenismo anterior y el posterior de la Revolución Mexicana.

Key Words: Indigenismo “Revolucionario”, Indígena, Manuel Gamio, mestizaje, indigenista / “혁명적” 인디헤니즘, 원주민, 마누엘 가미오, 메스티소화, 인디헤니스파.

논문투고일자: 2006. 05. 01

심사완료일자: 2006. 06. 24

게재확정일자: 2006. 07. 20

참고문헌

1. 1차 자료

Ethnos (1920-1925)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SEP), *El Esfuerzo Educativo en México: La Obra del Gobierno Federal en el Ramo de Educación Pública durante la Administración del Presidente Plutarco Elías Calles, 1924-1928*, México: SEP.

_____(1926), *La Educación Pública en México a través de los Mensajes Presidenciales*, México: SEP.

_____(1927), *El Sistema de Escuelas Rurales en México*, México: Talleres Gráficos de la Nación.

_____(1927), *La Casa del Estudiante Indígena: 16 meses de Labor en un Experimento Psicológico Colectivo con Indios*, feb. de 1926-jun. de 1927, México: Talleres Gráficos de la Nación.

_____(1928), *Las Misiones Culturales en 1927*, México: SEP.

Basauri, Carlos(1928), *La Situación Social Actual de la Población Indígena de México y Breves Apuntes Sintéticos sobre Antropología y Etnografía de la Misma*, México: Talleres Gráficos de la Nación.

Gamio, Manuel, and José Vasconcelos(1926), *Aspects of Mexican Civiliza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Gamio, Manuel(1918), *Programa de la Dirección de Estudios Arqueológicos y Etnográficos*, México: Secretaría de Agricultura y Fomento.

_____(1919), *Programa de la Dirección de Antropología para el Estudio y Mejoramiento de las Poblaciones Regionales de la República*, México: Secretaría de Agricultura y Fomento.

_____(1922), *La Población del Valle de Teotihuacán*, 3 vols., México: Talleres Gráficos de la Nación.

- _____ (1956), *Arqueología e Indigenismo*, México: 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
- _____ (1960), *Forjando Patria, Pro-Nacionalismo*, 2do., ed., México: Editorial Porrúa.
- Molina Enríquez, Andrés(1909), *Los Grandes Problemas Nacionales*, México: Imprenta de A. Carranza e Hijos.
- Vasconcelos, José(1948), *La Raza Cósmica: Misión de la Raza Iberoamericana*, México: Espasa-Calpe Mexicana.

2. 2차 자료

- 김세진(2003), 「메스티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 *한국문화인류학*, vol. 36 no. 2, pp. 3-36.
- 이성형(1998), 「멕시코 혁명 이후의 민족 정체성의 정치」, *서양사론*, vol. 62, pp. 127-149.
- Aguirre Beltrán, Gonzálo(1973), *La Política Indigenista en México: Métodos y Resultados*, México: 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
- Barre, Marie-Chantal(1983), *Ideologías Indigenistas y Movimientos Indios*, México: Siglo Veintiuno.
- Batallion, Claude, et al.(1982), *Indianidad, Etnocidio, Indigenismo en América Latina*, México: INI.
- Benítez, Agustín Basave(1992), *México Mestizo: Análisis del Nacionalismo Mexicano en torno a la Mestizofilia de Andrés Molina Enríquez*,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Bernal, I. and Hurtado, E. Dávalos(eds.)(1956), *Estudios Antropológicos Publicados en Homenaje al Doctor Manuel Gamio*, México: Dirección General de Publicaciones.
- Bethell, Leslie(ed.)(1987), *The Independence of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Bonfil Batalla, Guillermo(1996), *México Profundo: Reclaiming a Civilization*, Philip A. Deniss trans., Austin: Univ. of Texas

- Press.
- Comas, Juan(1953), *Ensayos sobre Indigenismo*, México: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 _____(1964), *La Antropología Social Aplicada en México: Trayectoria y Antología*, México: Instituto Indigenista Interamericano.
- Delpar, Helen(1992), *The Enormous Vogue of Things Mexican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1920-1935*, Tuscaloosa: Univ. of Alabama Press.
- Díaz-Polanco, Héctor, et al.(1979), *Indigenismo, Modernización y Marginalidad: Una Revisión Crítica*, México: Juan Pablos.
- Fabregat, G. Esteva(1988), *El Mestizaje en Iberoamérica*, México: Alhambra, S. A.
- French, José A.(1990), *Indianismo e Indigenismo en América*, México: Aliaza Editorial.
- García Mora, Carlos(ed.)(1988), *La Antropología en México. Panorámico Histórico*, México: INAH.
- González Gamio, Ángeles(1987), *Manuel Gamio: Una Lucha sin Final*,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Hewitt de Alcántara, Cynthia(1984), *Antropological Perspectives on Rural Mexico*,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Mendieta y Núñez, Lucio(1961), *Homenajes: Augusto Comte, Emilio Durkheim, Manuel Gamio*,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de la Universidad Nacional.
- Rojas Garcidueñas, José(1979), *El Ateneo de la Juventud y la Revolución*, México: Biblioteca del Instituto Nacional de Estudios Históricos de la Revolución Mexicana.
- Romanell, Patrick(1952), *Making of the Mexican Mind: A Study in Recent Mexican Thought*, 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 Valenzuela Arce, José Manuel(coord.)(1992), *Decadencia y Auge de las*

Identidades: Cultura Nacional, Identidad Cultural y Modernización, Tijuana: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

Vaughan, Mary Kay(1982), *The State, Education, and Social Class in Mexico, 1880-1928*,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 Press.

Villoro, Luis(1979), *Los Grandes Momentos del Indigenismo en México*, México: Ediciones de la Casa Chata.

Warman, Arturo, et al.(1970), *De Eso que llaman Antropología Mexicana*, México: Editorial Nuestro Tiempo.